

인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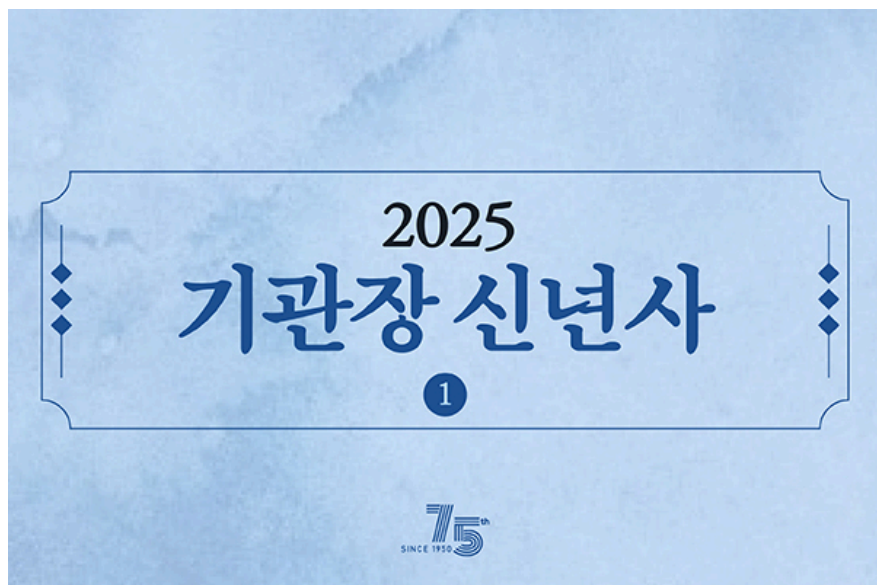


법률신문

기획기사

2025 기관장 신년사 ①

2025-01-01 07:38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사회에 법치주의
가 실질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안팎으로 적지 않은 도전과 난관이 있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국민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가 5년으로 완화되었고,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법부 예산이 다소 증액되어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등 사법 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새해에도 심기일전하여 낮은 자세로 국민에 대한 봉사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위기를 극복하고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지난 연말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대표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도서관이 헌법재판에 더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법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을 검토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하여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주시요.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주시요.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하였고, 헌법

재판소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되었습니다.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공정한 선거관리 본연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乙巳)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선거 참여야말로 우리나라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갑자기 선포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군으로부터 위원회 청사가 점거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그 과정은 선거관여자뿐만 아니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를 점거한 사건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치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느 시점에 고정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진행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한해도 변함없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정확한 정보 손쉬운 상담으로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격동의 시기, 법치주의 바로 세울 것"

존경하는 법률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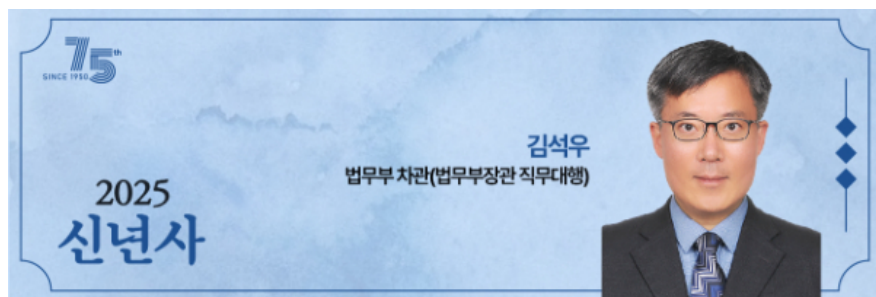
지난해, 대한민국은 극도로 혼란한 정치적 상황과 얼어붙은 경제 환경 속에서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제도의 한 축인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작년 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대한변협은 사태 발생 즉시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포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임을 선언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시대적 사명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앞장서서 수습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변협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법률 분쟁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하는 '법률서비스 보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변호사 정보와 손쉬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 유지권' 도입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회에서 이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법치주의 수호와 국민 권익 향상이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성장과 번영의

기운을 품은 푸른 뱀(靑蛇)의 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만복(萬福)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형사절차 전면 전자화에 철저 대비하겠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은 새로운 ‘기대’ 속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2024년은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의미 깊은 해이기도 했지만 어려운 일들 역시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며칠 전 발생한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놀라고 눈물짓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비극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무·검찰·범죄예방·인권·국제법무·교정·출입국 등 각 법무행정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며, 범죄예방을 위해 대상자들을 성심껏 지도하고, 새로운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등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하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

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도 신속히 안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마음을 합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많은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무부의 모든 업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무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2025년,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소

인쇄하기